

I 3 선사 문화

01.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랴오통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랴오허강 유역의 ❶□□ 문화 : 채도(원통형 토기), 용 모양 옥기, 여신의 얼굴상
중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허강 중류 ❷□□□ 문화 : 토기 표면에 무늬를 넣은 ❸□□ 제작 황허강 하류 ❹□□□□ 문화 : 홍도·회도·흑도·백도, 세 발 달린 토기와 동물 모양 토기 양사오 문화 + 다윈커우 문화 → ❺□□(흑도) 문화 창장강 하류 ❻□□□ 문화 : ❼□□□를 기반으로 발달, 흑도·홍도, 량주(옥기 등) 문화로 발전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❽□□□□ 토기 등 제작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❾□□ 토기, 여성 모양의 토우, 농경보다는 수렵·어로·채집 생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랴오허강 유역의 ❶□□ 문화
 ▲ 토기: 랴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여신의 얼굴상: 눈을 청옥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 특징이다.
 ▲ 용 모양 옥기: 용을 형상화한 옥기가 제작되었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
 ▲ 토기: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❷□□□□ 문화
 ▲ 토기: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❷□□□□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물고기 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황허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한 ❹□□□□ 문화
 ▲ 토기: 황허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한 ❹□□□□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❷□□□□ 문화에서는 초기에 홍도가 만들어졌으나 중기 이후 회도, 흑도가 늘어났다.

창장강 하류 유역의 ❻□□□□ 문화
 ▲ 돼지 그림 토기: 창장강 하류 유역의 ❻□□□□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당시 사람들이 돼지 등을 가축으로 길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열도
 ▲ 토기: ❾□□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표면에 새겨줄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토우



시명감 충만!!

I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01. 청동기 문화의 발전

① □ □ 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발달 • 청동 무기, 재갈이나 등자 등의 마구, 사슴돌과 판석묘 등을 남김
중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 □ □ □ 문화 :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 ③ □ □ □ □ 등 제작 →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 • 상 왕조 : 청동제 무기와 제기 제작
만주 ·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2000년경~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등장 • 비파형 동검, 청동 거울, 반달 돌칼, 고인돌 등을 남김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기술, 청동기, 철기 수용 → ④ □ □ □ □ 문화 시작 • 종 모양 청동기(⑤ □ □ □) 등 청동 제기와 장신구, 철제 농기구와 무기 제작

●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 사슴돌 ▲ 판석묘

□ □ 초원의 사슴돌과 판석묘이다. 사슴돌은 초원 지대에 세워진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판석묘는 시신을 안치하고, 주변에 여러 장의 판석을 세운 것이다.

▲ 야요이 토기 ▲ □ □ □ □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야요이 토기와 종 모양 청동기(□ □ □ □)이다. 종 모양 청동기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 술잔 ▲ □ □의 네발 솥

□ □ □ □ 문화의 유물인 청동 술잔과 □ □의 네발 솥은 주로 제사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비파형 동검 ▲ 고인돌

청동으로 제작된 비파형 동검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다.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알려 주는 문화유산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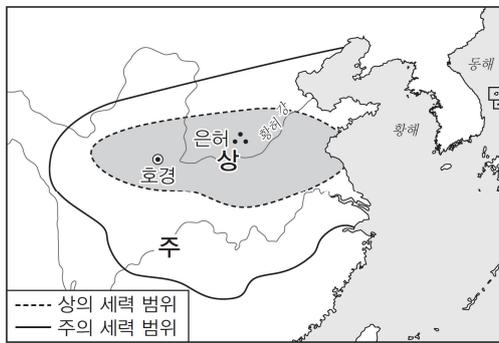
02. 국가의 등장

중국 초기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 • 하(夏) : 기원전 2,000년경 ⑥ □ □ □ 중류 지역에서 성립, 문헌상 최초의 왕조 • 상(商) : 기원전 1600년경 성립, 신정 정치, ⑦ □ □ □ 사용, 은허 유적 • 주(周)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鎬京)을 수도로 삼음 : 혈연에 따른 종법적 ⑧ □ □ □(왕이 수도와 직할지 통치, 제후가 지방 통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 :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왕실 권위 약화
-----------------	------------------------------------------------------------------------------------------------------------------------------------------------------------------------------------------------------------------------------------------------------------------------------------------------------------------------------------------------------------------------

춘추 전국 시대

- 춘추 시대
: 기원전 770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서북방 유목 세력인 ㉔□□의 침입 → 주가 호경에서 낙읍으로 천도 →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 춘추 5패가 정국 주도(존왕양이)
- 전국 시대
: 기원전 403년 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질서 붕괴 → 전국 7웅 대두(약육강식) → ㉕□□ 등 법가 사상가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추진한 진(秦)에 의해 통일
-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㉕□□□ 도입 :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 •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변법) 실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 •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발, 도시 발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㉕□□□□ 등장 •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의 규모 확대, 전쟁의 양상 변화



▲ 상과 주의 세력 범위



▲ 춘추 전국 시대

진(秦)

- 진시황제
: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전국 통일(기원전 221)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최초로 황제 칭호 사용, 전국적으로 ㉕□□□□ 실시, 3공 9경의 관료제 시행)
: 도량형·화폐·문자 통일, 도로망 정비, 사상 통제(㉕□□□□□)
- 쇠퇴
: 만리장성 축조 등 대규모 토목 공사와 가혹한 법치에 대한 불만 → 진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난 등 농민 봉기 발생

요, 순 등이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의 시황제는 시호 짓는 법을 없애며 이르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행적을 논하며, 신하로서 군주를 의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행적을 비난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자신더러 성인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덕(德)은 삼황(三皇)을 겸하고 공(功)은 오제(五帝)보다 더하다.”라고 하며 마침내 칭호를 고쳐 황제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 것이다. - 『통감절요』 -

한(漢)

- ㉕□□(유방, 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
: 진 멸망 이후 초의 항우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 재통일(기원전 202), ㉕□□□(군현제 + 봉건제)
- ㉕□□(유철, 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 제후의 세력을 억제하고 군현 확대, 흉노 원정을 위해 월지에 ㉕□□ 파견(기원전 139)
: 소금·철 등의 ㉕□□□□ 실시, 상공업 통제
: ㉕□□□□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중시
- 왕망의 황위 찬탈
: 외척 출신으로 (전)한을 무너뜨리고 ㉕□□(新) 건국 →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 단행 → 실패
- 후한(25~220)
: 신이 멸망한 후 호족의 지원으로 광무제(유수)가 건국(도읍 ㉕□□□)
: 외척과 환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멸망 → 위·촉·오가 대립하는 삼국 시대 전개

흉노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라시아 북부의 초원 지대에서 성장 발전 : ㉓□□ □□가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냄 →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대 통합 정치 :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 형성 → 선우 아래 ㉔□□□□과 우현왕 등을 둠
고조선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 제정일치 발전 : 상·경·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㉕□□의 법 제정,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과 대립 ㉖□□의 집권 : 한 초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㉗□□□)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
만주·한반도의 여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 :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성립 고구려 : ㉘□□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에서 건국 삼한 : 마한·진한·변한 성립, 농경 발달, 제정 분리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 전후 ㉙□□□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체 등장 3세기경 30여 개의 소국이 히미코 여왕의 ㉚□□□□□을 중심으로 연맹체 형성

03. 중원 왕조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

흉노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시황제 : 흉노를 초원으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 탈환 → 흉노의 재침을 막기 위해 ㉛□□□□ 축조 한 고조 : 평성 ㉜□□□ 전투에서 묵특 선우에 패배(기원전 200) → 흉노에 공물과 공주를 보내 화친(기원전 198) 한 ㉝□□ : 흉노에 대항할 동맹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 : 대대적인 원정으로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냄
베트남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둥·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비엣(남월) 건국(찌에우다, 기원전 203) 한 ㉞□□ : 남비엣 정복(기원전 111) → 9군 설치
만주·한반도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 한 무제 : 고조선과 ㉟□□의 연합을 막기 위해 고조선 정복(기원전 108) → 4군 설치
일본 열도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7년 왜의 노국왕이 후한 ㊱□□□에게 조공하고 '한위노국왕'이라고 새겨진 금인을 받음 239년 아마타이국의 ㊲□□□ 여왕이 위(魏)에 조공하고 '친위왜왕'이라는 칭호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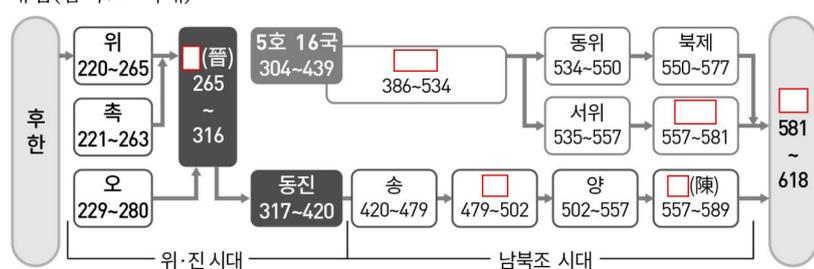
●한 ㉝□□의 대외 정책

황제께서 중국이 피폐하여 평안한 나날이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대장군, 표기장군, 복파장군, 누선장군을 파견하여 남으로 백월을 멸망시켜 일곱 군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흉노를 물리쳐 혼야왕 10만의 무리를 항복시키고 다섯 개의 속국을 설치하고 …… 동으로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시어 흉노의 왼쪽 팔을 자르셨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대만을 격파하여 서른여섯 나라를 겸병하시고, 오손과 손을 잡아 둔황, 주취안, 장예의 세 군을 설치하시어 야강(婁羌)을 떼어 놓으시어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 『한서』 -

2 국가의 통합과 발전

01. 남북조 시대의 전개

<p>북위의 화북 통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세운 북위(탁발도)가 439년 화북 통일 ② 효문제(재위 471~499)의 □□ 정책 <p>: 평성에서 ③ □□으로 천도,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 금지, 한족의 언어와 풍습 수용, 한족의 성씨 사용, 한족과의 혼인 장려 등 → 유목 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가 점차 융합(호한 융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제가 말하길, “짐은 평성에는 조운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의 백성들이 가난하였다고 생각 한다. 짐이 휘양으로 천도한 것은 사방의 조운을 유통하려 한 것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황허강의 흐름이 험난하다고 꺼리고 있으니, 짐의 이번 행차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무릇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니, 예악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모든 북방 언어의 사용을 단절하고 한족의 언어를 따르려 한다. …… 그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이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는 것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만약 고의로 사용한다면 마땅히 관직을 깎아내리거나 쫓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p>남조의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진이 멸망한 이후 송(유유), ④ □(소도성), 양(소연), ⑤ □(진패선)의 한족 정권 수립 → 북위 등의 북조와 대립(남북조 시대) 

02. 수·당의 건국과 발전

<p>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기 후반에 남북조 시대 통일(589), ⑥ □□□를 여러 차례 침략하였으나 실패
<p>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세기 초 수의 멸망 이후 중원 장악(618) 돌궐 및 ⑦ □□ 공격,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

03. 삼국의 항쟁

<p>백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세기에 고구려와 패권 다툼, 남조·왜와 연결
<p>고구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세기에 한반도 주도권 장악 → 6~7세기 수·당과 대립
<p>신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기에 한강 유역 확보 및 가야 병합,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



04. ④□□□ 정권의 성장

성립	• 4세기경 일본 열도에서 ④□□□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성립
발전	•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합하며 영역 확대 • ④□□□□을 만들어 지배자의 권력 과시 • 중국과 한반도 등지의 선진 문물을 수용, ④□□□ 제작, ④□□□ 문화(일본 최초의 불교문화) 발달

3 동아시아 국제 전쟁과 지역 통일 국가의 등장

01. 7세기 동아시아 전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8년 ㉠□□ 연합 결성 → 백제 멸망(660) → ㉡□□ 전투(663) → 고구려 멸망(668) •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 의도 표출 → 신라가 백제·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군을 축출 → 신라의 삼국 통일 완성(676)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이 백제의 영토에 웅진·마한·동명 등 다섯 도독부를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각기 주·현을 통할하였고, 그 우두머리를 세워 도독·자사 및 현령으로 삼았다. 왕문도에게 명해 웅진 도독으로 삼았고, 군대를 총괄하여 그곳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달래게 하였다. • 용삭 3년(663) 황제가 신라에 조서를 내려 그 나라를 계림주 도독부(鷄林州都督府)로 삼고, 김법민(문무왕)에게 계림주 도독(鷄林州都督)을 제수하였다. • 당이 고구려의 영토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을 설치하고, 다시 안동 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지역의 장수 중에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자사 및 현령에 제수하였다. 이어서 설인귀를 보내어 군사를 총괄하여 백성을 위무하도록 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 『구당서』 -</p> </div>
-----------	------------------------------------------------------------------------------------------------------------------------------------------------------------------------------------------------------------------------------------------------------------------------------------------------------------------------------------------------------------------------------------------------------------------------------------------------------------------------------------------------------------------------------------------------------------------------------------------------------------------------------------------------------------------------------------------------------------------------------------------------------------

02. 지역 국가의 성립

당	•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하여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
통일 신라	•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
㉢□□	•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건국(698) → 통일 신라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 전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622) : 12계 관위(官位)와 17개 조 헌법을 제정해 일본 정치체제를 확립, 불교 보급 • ㉣□□□를 파견하여(630~894) 선진 문물 수용 • 을사의 변(645) : 나카노오에 황자가 도당 유학생 등의 협력을 받아 소가노 이루카 등 소가씨 세력 제거 • ㉤□□□ □□ : 고토쿠 천황,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개혁 추진 • 7세기 후반부터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를 건설하고 천도(71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p>겐메이 천황이 조를 내리길, “경사(京師)는 백관이 일하는 곳이요, 천하의 백성들이 귀의하는 곳이다. …… 옛날에 상의 왕은 5번 수도를 옮겨 중흥을 이루었고, 주왕은 3번 천도하여 태평을 이루었다. 지금 나라(平城)의 땅이 길흥에 맞고 점괘도 좋으므로 마땅히 도읍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건설 자재는 사안에 따라 주청하라.”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속일본기』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에 ㉦□□□□를 건설하고 천도(794)

II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1 조공·책봉 관계의 형성

01. 주(周)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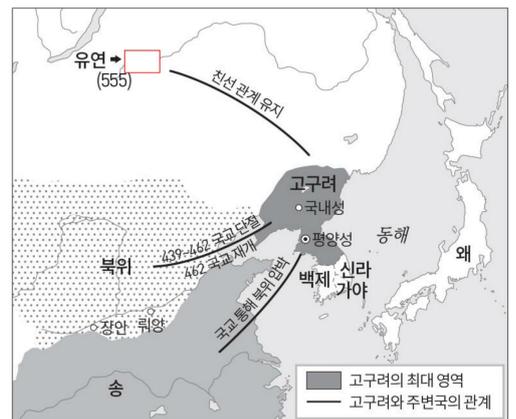
특징	• 주로 혈연을 기초로 왕실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	--------------------------------

02. 한(漢) 대의 외교 관계

고조	•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 →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음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❶□□□(華夷觀) 확립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특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td> </tr> </table>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후한 광무제	• 왜의 노국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후 책봉을 하여 금인 하사		

03. 남북조 시대의 다원적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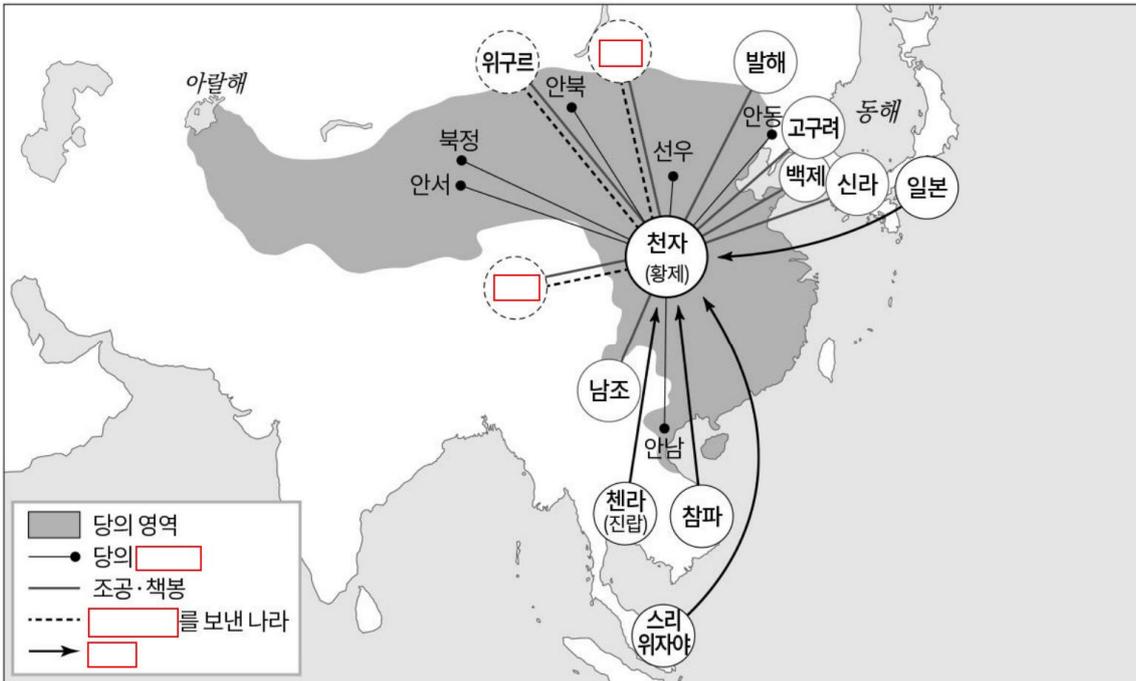
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멸망 이후 각국이 새로운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외교 활동 전개 • 조공·책봉 관계가 강대국 중심의 외교 형식에서 상호 우호 관계 확인을 위한 현실적·다원적 외교로 변화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그대는 지난날 북으로는 유연(402~552)과 통하고 서로는 하·북량·토욕혼과 연결하고 동으로 북연·고구려와 연합해 왔다. 무릇 이 몇 나라는 내가 거의 멸망시켰다. 이로써 보건대 네가 혼자 어찌 설 수 있단 말인가! …… 내가 이제 북으로 유연을 정벌하려는 것은 먼저 강한 적을 없애고자 함이다. 그대가 만약 명을 따르지 않으면 다가오는 가을에 다시 와서 취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각국의 외교 활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남북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td> </tr> <tr> <td>만주 한반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td> </tr> <tr> <td>왜</td> <td>•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td> </tr> </table>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04.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당 중심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국에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정복 활동을 통해 안북·선우·안동·안남 ⑥□□□ 등 설치 		
신라, 발해와 당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수용[신라(713), 발해(762)] : 정권 안정과 선진 문물 도입,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 대처 목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 : 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나당 전쟁, 발해의 산둥반도 공격 등)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당과 ⑦□□ 관계만 맺음 : 견당사 파견(당의 문물 수용 목적) → 9세기 말 파견 중지 신라, 발해와도 사신 교환 		
유목 민족과 당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당 중심의 ⑧□□ 관계 미수용 → 경제적 교류를 위한 ⑨□□ 관계만 원함 경제적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을 공격 → 당이 화친 정책의 하나로 ⑩□□□□ 파견 		
	<table border="1"> <tr> <td>돌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td> </tr> </table>	돌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돌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table border="1"> <tr> <td>티베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td> </tr> </table>	티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티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table border="1"> <tr> <td>위구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td> </tr> </table>	위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위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자국 중심 천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각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중심에 놓고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을 활용 독자적 연호와 군주 칭호 사용 		

● 당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II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2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01.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중국	• 당 멸망 후 5대 10국 시대(907~979) 전개 → 송이 중국을 통일하여 분열을 수습함
북방 유목 민족	• 거란(요), 서하, 금의 성장 → 다원적 국제 관계 형성

02. 북방 민족의 성장

거란 (916~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가 건국, 수도 상경 임황부 • ②□□ 정복(926), 만리장성 이남의 ③□□□□ 차지(936), 송을 압박하여 ④□□□ □□ 체결(1004) • 이원적 통치 정책 : ⑤□□□□(유목민)·□□□□(농경민) 실시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거란 문자 사용 등
서하 (1038~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구트족 ⑥□□□가 건국, 수도 흥경 • 비단길을 통해 동서 무역 전개 • 책봉과 교역을 둘러싸고 송과 전쟁 → 송으로부터 은과 비단, 차 등을 받음(경력의 화약, 1044)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서하 문자 사용
금 (1115~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⑦□□□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건국, 수도(상경 회령부 → ⑧□□ → ⑨□□□ → 채주) • ⑩□□과 연합하여 거란(요) 공격 → 금이 거란(요) 정복(1125) → ⑪□□을 공격하여 화북 차지 • 서하, 고려, 남송과 ⑫□□ 관계 체결 • 이원적 통치 정책 : ⑬□□·□□□□(여진족, 거란족 등), ⑭□□□□(한족 등) 실시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여진 문자 사용 등

03. 송의 성쇠

문치주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절도사의 권한 대폭 축소, 황제권 강화 추구 • 결과 : 군사력 약화 초래 → ⑮□□·□□에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 유지
남송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의 공격으로 변경(⑯□□□) 함락 → 북송 멸망(정강의 변) → 조구(고종)가 남송을 세우고 ⑰□□(항저우)을 도읍으로 삼음 • 금과 ⑱□□ 관계 체결(소흥화의, 1142)



▲ 11세기 동아시아 형세



▲ 12세기 동아시아 형세

04. 고려의 대외 관계

거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화친 → ⑲□□ □□ 지역 확보 • 3차 침입 격퇴 이후 조공·책봉 관계 유지
금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관이 ⑳□□□□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㉑□□ □□ 축조(1108) • 여진이 금을 건국한 이후 군신 관계 체결
송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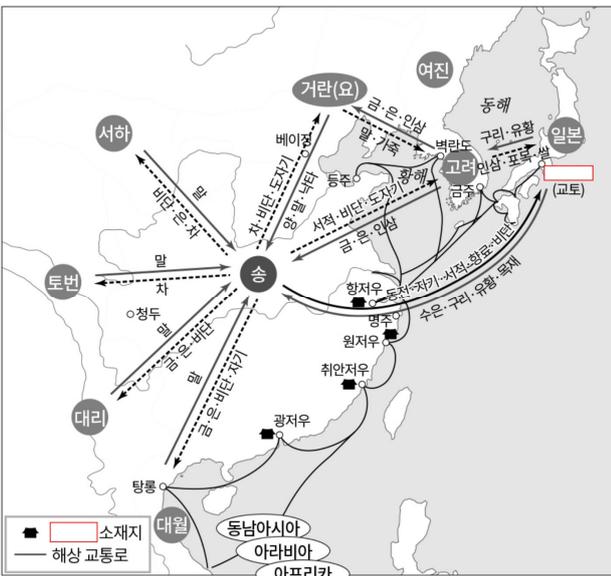
우리나라(고려)는 조상 대대로 귀국과 교류하며 공손히 명령에 따르는 정성을 감히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소. …… 지금 황제의 조서를 보니, …… 고려도 군사를 이끌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금에 천벌을 내리자고 하였고. …… 우리의 모자라고 나약한 병사들로 새롭게 승기를 잡은 오랑캐(금)를 당해 낸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오. 다만 군사를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비하였다가 귀국(북송)의 군대가 저들의 국경을 제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감히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지 않겠소?

- 『고려사』 -

05. 일본의 대외 관계

9세기 말	• 22□□ 파견 중지(894) → 10세기 이후 주변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축소
12세기 말	• 24□□□□ □□□□가 가마쿠라 막부 수립(1185) → 천황으로부터 24□□(정이다장군)으로 책봉(1192) • 주변국과 외교 관계에 소극적, 민간 교류는 지속
민간 차원	• 송의 25□□을 대량으로 수입, 송 상인과 승려를 통한 교류 지속 • 쓰시마를 통한 고려와의 교류 지속

● 동아시아의 교역



3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01.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성립	• 13세기 초 몽골 지역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 통합 →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1206), 예게 몽골 울루스(대몽골 제국) 수립
발전	• 칭기즈 칸(재위 1206~1227) : 26□□·□□제에 기반하여 군사력 강화 : 27□□ 복속(1209)과 정복(1227), 28□□ 침공과 화친 조약 체결(1214), 29□□의 연경 함락(1215), 30□□□ 정벌(비단길 장악) →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까지 진출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재위 1229~1241) : 31□□ 침공 시작(1231), 32□□ 정복(채주 점령, 1234) • 33□□□ 칸(재위 1260~1294) : 카라코룸에서 34□□(베이징) 천도, 국호를 원으로 정함(1271) : 고려 복속(1260), 일본 침공(1274·1281) : 35□□ 정복(애산 전투, 1279) → 유목 민족이 중국 전역 지배

국초를 살펴보면 병사를 관할하는 관원은 병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작위의 준비가 나뉘었다. 만 명의 장정은 만호, 천 명의 장정은 천호, 백 명의 장정은 백호로 삼았다. 세조(쿠빌라이) 때에 관계를 두루 정비하여 내부로는 오위를 설립하여 숙위의 여러 군대를 총괄하게 하고, 위에는 친군도지휘사를 설치하였다. 외부로는 만호 예하에는 총관, 천호 예하에는 총파, 백호 예하에는 탄압을 두었으며 추밀원을 세워 이를 총괄하였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추밀원을 설치하고, 사안이 이미 끝났다면 폐하고 도진무사를 행성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만호, 천호, 백호는 상, 중, 하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만호는 금호부 …… 천호는 금부, 백호는 은부를 소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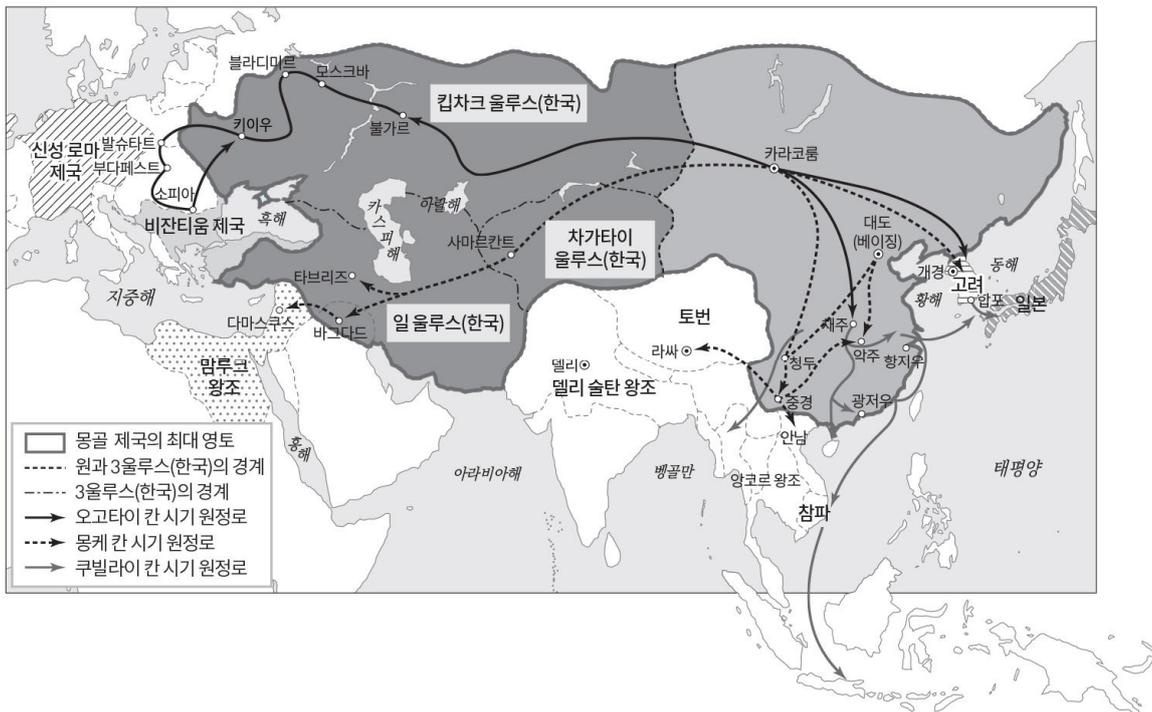
- 『원사』 -

02. 통치 방식

지배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 확립 • 몽골인이 정치·군사 담당, 색목인이 재정 담당, 한인과 1300년(남송의 한인)은 피지배층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설치, 1300년 파견

03.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 항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으로 천도하여 장기 항전 →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 개경으로 환도(1270) → 삼별초의 저항
대월(大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쩐(陳, 1225~1400) 왕조 시기 몽골의 세 차례 침략(1257·1284·1287) → 1300년의 활약 등으로 격퇴 → 몽골에 조공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두 차례 일본 원정 → 1300년 막부의 저항과 태풍으로 실패



04.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의 활성화

교역망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설치, 초원길·비단길 등의 교역망을 안정적으로 확보 • 1300년 설치 :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서 무역 관리 • 동아시아 교역망 형성 : 고려,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연결 • 1300년 : 12세기 1300년 왕조 시기부터 발행 → 원에서 전국적으로 유통
동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아시아 문물 전래 :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 • 1300년 1300년 이븐 바투타의 활동 등

- 4□□□ □□ : 원대 중국을 방문한 뒤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유럽에 알려졌다.
- 이븐 바투타 : 모로코 출신의 순례 여행자로 원대 중국을 방문하고 『여행기』를 통해 역참과 교초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4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01. 명(1368~1644)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조 홍무제(주원장, 재위 1368~1398) : 홍건적의 난 가담 → 강남 지역의 한족 지식인을 지원으로 명 건국(1368), 4□□을 수도로 삼음 :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축출, 한족 문화 회복 노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조 4□□□(주체, 재위 1402~1424) : 정난의 변을 통해 즉위, 4□□□을 건설하고 4□□□ 천도 : 몽골 공격, 5□□□의 항해 시작(1405), 5□□□(호 왕조) 침공과 일시적 점령(140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예전에 『도이지략』을 보았는데 천시 기후의 구별, 지리와 인물의 이채로움을 기재하니 '천하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영락 11년에 황제가 정화에게 보선을 거느리고 서쪽 여러 나라들에 가서 황제의 조서를 선포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하였다. 나는 변인들의 책을 통역하는 사절의 말단이 되어 그가 이르는 곳을 따르니 파도의 광대하고 아득함이 그 몇천만 리인지 알지 못한다. - 『영애승람』 - • (선덕) 6년 8월 8일 므라카를 출항하여 18일 수마트라에 도착하였다. …… 11월 18일 고리국에 도착하였다. 22일 출항 후 여러 날을 항해하여 12월 25일에 호르무즈에 정박하였다. (선덕) 8년 2월 18일 출항하여 3월 11일 고리에 도착하였다. 20일에 대장선이 귀항하여 4월 6일 수마트라에 정박하였다. 12일 출항하여 9일 후 20일에 므라카에 도착하였다. - 『전문기』 - </div>

02. 조선(1392~1910)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 위화도 회군(5□□□□) 이후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 건국
-----------	----------------------------------------------------------------------------------------------------------------------------------------

03. 무로마치 막부(1336~1573)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쿠라 막부의 쇠퇴 : 몽골-고려 연합군의 침략 격퇴 → 이후 정치 혼란으로 쇠퇴 → 고다이코 천황과 무사 세력이 연합하여 가마쿠라 막부 붕괴(1333) → 고다이코 천황의 친정 •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5□□□□ □□□□가 교토에 수립
남북조의 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의 천황(북조)을 내세운 무로마치 막부와 요시노로 피신한 천황(남조)의 대립 시작(1336) • 제3대 쇼군 5□□□□ □□□□(재위 1368~1394)가 남북조 시대 통일(1392) →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04. 국제 질서의 재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에 조공·책봉 요구 →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조선, 5□□, 여진, 일본 포함) • 정화의 항해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조공하는 사례 증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직후 요동 정벌 추진(명과 대립) → 태종 즉위 이후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봉 관계 형성(1401)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과 국교 수립 : 명 황제가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1401·1403) : 명과 6□□ □□ 전개(1404~1547) • 조선에서 7□□□ 파견(1429~)
-----------	-------------------------------------------------------------------------------------------------------------------------------------------------------------------------------------------

● 15세기 초 동아시아

